

“현 KTX 호남선 노선 직선화해야”

민주 김수홍 의원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국가철도교통망 계획에 반영을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 현상 발생…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차원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은 낙후된 전북 및 호남권 발전을 위해 “KTX호남선 노선을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4차 국가철도교통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수홍 의원의 요구대로 KTX 직선



화가 이뤄지면, 수도권과 호남권의 이동시간이 약 20분 가량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용산역을 기준으로 익산역까지 40분대, 전주역 및 정읍역까지는 1시간 내외가 소요될 것이며, 광주송정역까지 1시간 20분대, 목포역까지 1시간 50분대, 여수EXPO역까지는 2시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수홍 의원은 “현행 KTX 호남선은 세종시 건설 당시 충청권의 요구를 반영해 오송, 공주를 거쳐 익산으로 연결됐으나, 이후 수도권 및 충청권으로

과다한 인구 유입 및 산업 몰림 현상이 발생해 전북을 비롯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돼 가고 있다”며 직선화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KTX 호남선 직선화를 통해 호남지역의 산업 및 기업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새만금의 조기관공 등 제반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할 것이며, 교육기관 및 공기업의 유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1,500여만 호남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대표적인 SOC인프라가 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율러, 김수홍 의원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되면서 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물류 및 산업생태계를 준비해 가고 있다”며 “대구 신공항에도 수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KTX 호남선 직선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호남은 낙후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홍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천안·아산역과 익산역을 잇는 고속철 노선 직선화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호남 정치권은 물론 1,500만 호남인들의 뜻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고로쇠 수액 채취

‘꼭 허가받은 나무에서 해주세요’

지도점검 지속화 등 전북도, 관리 나서

전북도가 농한기 산촌주민의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인 ‘고로쇠 수액’의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입춘이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내에도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로쇠 수액은 현재 도내 남원, 완주, 진안, 장수 등 8개 시·군 고로쇠 수액 채취량이 2만3,000여본에서 채취되며, 농한기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고로쇠 수액 채취량은 그해의 기상상황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올 겨울은 잦은 강설과 큰 일교차로 인해 수액 채취량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로쇠나무는 예로부터 빼어난 향과 맛을 지닌 약재로 불렸다. 수액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뒤끝이 달콤하고 냄새가 없어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고 물리지 않아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갈증과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뼈와 피부에 좋고 당분인 자당도 물보다 40배가량 많아 신경통과 위장병, 관절염, 습진,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만 한다. ‘산림자원법’과 ‘국유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양어받은 나무에서만 채취해야 한다.

전북도는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액 채취목의 규격에

다른 적정 구멍수 및 채취 호스, 수액 집수통 관리 등 채취 관리요령 지침을 채취 임가에 통보하고, 친환경적인 수액을 채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기준에 따라 수액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유통 상태를 수시 확인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로쇠 수액은 예년과 같이 9리터(1.5리터 6병) 기준 2만5천원, 18리터(1.5리터 12병) 기준 5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통 매년 2~3월이면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중심으로 고로쇠 수액의 소비가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열리지 못해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온라인과 전화주문 판매 등 비대면 방식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따른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전북도 산림복지과장은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에 의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와 올바른 채취방법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액의 채취 일자·제조일·유통기한을 용기에 표기, 수액의 유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액채취가 끝날 때까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신임 민변 전북지부장에

김용빈 변호사 선출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주·전북 지부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김용빈(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제11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지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지부장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변 전주·전북지부 소속으로 다양한 소송을 벌이며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도민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확대된 4차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신속 처리를”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국회에 당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과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규모와 관련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해”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3특별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4·3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

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와 관련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 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제와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국민연금, 중기 자산배분계획 재수립을”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천선을 넘어섰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길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고, 그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

산배분계획에 따르면, 국내 주식비중 목표비율은 올해말까지 16.8%(±5%p), 2023년까지 15%로 줄이는 것인데, 이는 당시 해외 주식 상승세에 따른 것”이라면서 “최근 5년 간 비율만 보더라도 2016년 20%에서 2017년 19.2%, 2018년 18.7%, 2019년 18%, 2020년 17.3%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율조정은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점점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고 당장 대 출 규제가 겹치면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당규모의 유동 자금이 도착한 곳이 증권시장으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시작한 일상적인 투자가 지금의 코스피 지수 3천을 만든 것”이라면서 “전례가 없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배려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관련 발표를 낸 15개국 가운데 3위로 -1% 경제성장률을 지켜 냈는데, 국민연금이 ‘동학개미’가 만든 ‘3천 증시’에서 주식 순매도로 일관하는 것은 ‘동학개미’ 원성을 사는 차이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개인의 혈세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자금으로 이뤄진 것인데, 최장 기간 순매도로 국내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고, 앞으로도 16조원 가량을 추가 매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쌓아 올린 코스피 증시를 국민연금이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의 수준에 걸맞는 운용철학을 갖춰 지금부터라도 연금당국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변화무쌍한 자본 시장에 발맞춰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